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와 그 연원

김정선*

< 차례 >

- I. 머리말
- II. 문헌을 통해 본 제주도 옹기제작 개시시기와 유입경로
- III. 타지역 옹기가마 구조의 변화
- IV. 제주도 옹기가마 구조와 그 연원
- V. 맺음말

국문요약

제주도 옹기가마는 타지역과는 다른 형태로 인해 세계 유일의 돌가마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제주도 옹기가마의 외형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제주도에서 옹기를 제작하기 시작하는 초창기부터의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주도의 토착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는 제주도의 토제 그릇 생산의 역사를 볼 때 '고산리식토기'로 불리는 적갈색토기의 생산 이후 조선시대 옹기생산시기까지 오랜기간 기술적인 공백기가 있었으며 또한 노천요 혹은 수혈요와는 달리 고화도와 환원, 산화염 번조 환경으로 조절이 가능한 등요(登窯)의 축조는 기술적인 축적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므로 기술 혹은 기술자의 유입 없이는 이러한 기술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주도 옹기가마 조사상태로는 제주도 옹기제작 개시시기, 제작기술의 유입경로, 초창기 옹기가마 구조나 그릇의 형태 등 그 현상을 파악할

* 제주돌문화공원 학예연구사 / 충북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수 없기 때문에 문헌자료나 타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옹기가마의 구조, 옹기성형 기법 등을 통해 제주도 옹기제작기술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우선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본 옹기제작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물운반용 옹기가 벌통모양의 나무통에서 토제항아리(허벅)로 변화되는 시기를 검토하여 17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기술의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이용된 제주도 유입항로와 고려시대 전라도 지역 장사꾼의 입도, 조선시대 목관아 건물의 수리를 위해 들어온 전라도 지역 기술자의 유입 등을 통해 제주도와 가장 인접한 전라도 지역을 옹기제작기술 이전지역으로 보았다. 이는 제주도 옹기의 독특한 성형법이라고 할 만한 '토래미' 성형기술의 연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지역과 기술적인 유사성을 살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황을 통해 현시점에서는 전라도 지역을 옹기제작 기술이전 지역으로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마의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의 옹기가마는 '돌가마'의 형태로, 제주의 환경에 맞게 '제주적'으로 변모된 것으로 이해된다. 제주도 옹기가마는 가마생산품의 종류에 따라 노랑굴, 검은굴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정착되기까지의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는 제주도의 자생적인 기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육지부에서의 기술이전, 특히 기술자의 유입을 통해 가마축조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 옹기가마의 초기형태는 육지부의 가마형태와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점차 제주의 환경에 맞게 토착화 된 것으로 이해된다.

주제어 : 옹기가마, 돌가마, 등요(蜂窠), 허벅, 노랑굴, 검은굴, 기술이전, 토착화

I. 머리말

제주도에서 토제 그릇의 등장은 신석기시대 유적인 고산리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확인되는 '고산리식토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제주도에서의 토기의 등

장은 육지부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육지부에서 고화도 도질토기가 제작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도 제주도에서는 여전히 '고내리 식토기'로 불리는 적갈색토기가 제작되었으며 이전 단계의 적갈색토기에 비해 그릇의 두께, 토기 정면수법, 태토의 질 등에 있어 기술적인 발전은 있었으나 질적으로는 고화도 토기의 생산단계로 접어들지 못한다¹⁾.

이러한 단절은 제주도에서 더 이상 토제 그릇이 생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통일신라시대의 고내리식토기 생산을 끝으로 이후에는 육지부에서 생산된 도질토기 유입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그릇 생산은 수혈요 단계인 적갈색토기 단계에서 단절되고 육지부에서 회청색경질토기가 완제품의 형태로 유입되며 이후 고려, 조선시대에도 청자, 백자 등의 자기가 완제품의 형태로 공급되었다.

제주도의 이러한 토제 그릇의 사용 양상은 지표, 발굴조사 등 많은 자료에서 확인되며 특히 김정이 1520년 8월부터 1521년 10월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모습을 기록한 풍토록인 『충암집』 「제주풍토록」에 “사기, 도기, 유철은 모두 나지 않는다 沙器陶器鑠鐵 皆不産”라고 단적으로 남기고 있어 당시 제주도의 토제 그릇 생산 양상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제주도 도자기 생산의 역사는 전반적인 한반도의 도자기 생산단계에 비추어 볼 때 수혈요단계에서 생산된 적갈색토기 단계를 끝으로 일단 단절되었으며 그 이후 회청색 경질도기나 자기

1) 토기생산의 단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주도가 용암 분출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제주 전역을 덮고 있는 화산회토라는 토양의 지질학적 특징으로 인해 고온번조가 불가능한 점을 그 가장 큰 요인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작양상을 보면 순수한 제주토만으로도 충분히 1200℃ 이상으로 번조가 가능한 점을 볼 때 단순히 태토의 문제로만 토기생산 단절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고온번조를 가능케 하는 가마축조 기술 등도 더불어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생산되지 않았고, 이후 소위 '옹기'로 분류되는 도기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제주도에서 적갈색토기를 끝으로 토기제작이 단절된 몇 세기 후 '옹기'라는 제주도 토제 그릇의 제작 역사, 초창기 옹기가마의 구조, 제주도 옹기가마의 연원 등을 문헌자료, 타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옹기가마의 구조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현재까지 제주도 옹기생산의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절대편년을 가진 옹기자료가 없고 또한 옹기가마 발굴조사나 층위조사를 통한 유물의 상대편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토를 기록한 각종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식수 운반용 물항아리의 사용 기록을 통해 옹기제작 개시시기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고 또한 고대의 제주도 유입 항로 등의 기록을 통해서 제작기술의 유입경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제주도 옹기가마의 초기형태의 모습을 추적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타지역 옹기가마 구조를 통해 각 지역의 가마구조 변화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1920년대 후반 일본조사단에 의해 조사된, 당시 운영되었던 몇기의 옹기가마 구조를 통해 이들 가마의 발전과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현재 가마의 상부 구조가 남아있는 최종 운영시기의 제주도 옹기가마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 가마가 육지부의 일반적인 옹기가마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술한 문헌 내용, 타지역 옹기가마의 일반적인 구조와 더불어 제주도 옹기제작기술 중 성형기법 상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측면과 육지부 성형기법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가마축조를 포함한 제주도 옹기제작기술의 유입경로를 다시 한번 추정해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초기 옹기가마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며, 현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몇기의 가마 또한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가마들로, 제주도 옹기제작 초기의 가마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초창기의 가마 구조를 유추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옹기제작기술이 육지부를 통해 유입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가마구조 또한 당시 육지부가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타지역 가마와의 비교를 통해 초창기의 가마 모습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검토는 현재 제주도 옹기제작 개시시기에 대해 이렇다할 실물 편년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접근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본 논고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임을 밝히며 앞으로 제주도 옹기연구의 핵심이 될 가마구조 및 옹기 양식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마유적에 대한 학술발굴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문헌을 통해 본 제주도 옹기제작 개시시기와 유입경로

전술한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 옹기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현재까지는 절대편년을 가진 옹기자료가 전무하며 발굴조사나 층위 조사를 통한 유물의 상대편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도의 풍토를 기록한 각종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식수 운반용 물항아리, 즉 '허벅'의 사용 기록을 통해 옹기제작 개시시기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고대의 제주도 유입 항로 등의 기록을 통해 기술의 유입경로도 단편적으로 살펴보겠다.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적갈색토기 생산 이후의 회청색경질토기나 청자, 백자 등의 경질도자기 생산유적이 확인된 적이 없다. 때문에 제주도

에서 출토되는 각종 경질도자기는 모두 육지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머리말에서 인용한 김정의 풍토록 기록에서 보듯이 '사기, 도기, 유철은 모두 나지 않는다 沙器陶器鑄鐵 皆不產'라는 기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도자기가 완제품으로 유입된 사실은 이제현(1287~1367)의 『익재난고』 「탐라곡」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거꾸러진 보리 이삭 그대로 두고 / 가지 생긴 삼도 내버려 두었네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싣고서 / 북풍에 오는 배만 기다리고 있구나
 탐라는 땅이 좁고 백성들은 가난하다. 지난날에는 전라도 장사꾼들이 와서
 웅기와 쌀을 팔아주었는데 이제는 팔러 오는 이가 드물었다...2).

위의 사료를 보면 고려시대에 자기그릇(청자)과 쌀이 생산되지 않는 제주도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으며 시 아래에 붙어있는 해설에서 이러한 물건들이 전라도 지방의 장사꾼들에 의해 제주도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지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도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제주도에서 언제쯤 웅기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는지, 또한 이러한 기술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는지 다음의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보겠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제주도 웅기제작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물항아리(허벅)의 사용시기를 통해 유추해 볼 수 밖에 없다.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풍속조(1481~1530)와 김정의 『충암집』 「제주풍토록」

2) 李齊賢, 『益齋亂藁』四.

從教壘麥倒離枝 / 亦任丘麻生兩歧 / 滿載靑瓷兼白米 / 北風船子望來時
 耽羅地狹民貧 往時全羅之賈 販甕器稻米者 時至而稀矣...

(1520~1521)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등에 나무통을 짊어지고 다니고 머리에 이는 자가 없다³⁾.

한라산과 제주 고을 지역에서는 샘과 우물이 매우 적어서 마을 주민들이
혹 5리나 되는 지역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이를 가까이 있는 물이라고 한다.
혹은 하루에도 한두번 정도 길어오는데 짠 샘이 많다. 물을 길어오는데 반
드시 나무통을 등에 지고 가는 것은 많이 길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무릇
지는 물건은 대부분 여자들이 등에 지고 간다⁴⁾.

이 두 기록은 16세기 초반 제주도 물운반 실태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
이다. 물 운반시 육지부와는 달리 등에 지고 운반한다는 내용과 물운반
용 옹기가 옹기항아리가 아닌 나무통임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물운반
시 옹기항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옹기를 전혀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 식수를 구하
기 어렵고 먼거리를 이동하여 식수를 구해와야 하는 제주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당시 물운반용 옹기는 모든 가정의 필수품으로 꼽을 수 있
으며 만약 옹기제작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나무통보다 무게가 가벼
운 옹기항아리 제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⁵⁾.

그러나 1487년 제주에 왔던 최부의 「탐라시」에는

3)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風俗條.

背負木桶而無頭戴者

4) 金淨, 「冲庵集」 「濟州風土錄」

漢擊及州邑地 泉井絶少 村民或汲水於五里 則謂之近水 或有終日一汲二汲 而
多鹹泉 汲必以木桶負行 凡卜物多女負行 取多汲也

5) 해방 이후 고무, 양철 등 신소재의 등장으로 인해 무게가 가볍고 관리가 용이한
고무허벅, 양철허벅 등으로 물운반 옹기의 소재가 빠르게 바뀌는 현상과 같은 양상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가죽띠와 미투리에 칩베 옷을 입었는데 / 자갈밭과 띠집에 사립문마저
작네 / 물병을 진 시골 아낙은 샘물을 길어가고 / 젖대 부는 방죽 아이는
말을 치고 돌아오네⁶⁾

라고 하여 '負瓶村婦(부병촌부)' 즉, 물병을 진 촌 아낙을 묘사하고 있
다. 이 시를 보면 언뜻 옹기항아리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에
보이는 여러 기록에서는 모두 물운반용 용기를 나무통으로 묘사하고 있
어⁷⁾ '負瓶'이라는 내용은 시의 운율을 맞추기 위한 표현이거나 혹은 육
지부에서 유입된 도기질의 병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옹기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다. 위와같이 물운반용 용기로 나무통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은 17세기~18세기 초반의 문헌기록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 건
이 1628년에서 1637년까지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할 당시 본 제주의 풍

6) 崔溥, 『耽羅詩』

革帶芒鞋葛織衣 / 田茅屋矮柴扉 / 負瓶村婦汲泉去 / 橫笛堤兒牧馬歸

7) 물운반용 용기를 나무통으로 기록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① 金尙憲, 『南槎錄』(제주안무사로 파견된 1601년 8월부터 1602년 2월까지의 기
행문-앞시기의 자료인 임제의 남명소승, 최부의 탐라시 등을 인용기록)

林梯 「南溟小乘」

鑿全木爲桶 負而汲水 閭巷之間 負薪水者 皆婦人也

통나무를 뚫어 통을 만들어 등에 지어 물을 길어온다. 마을거리에서 땀나무와 물을
등에 지는 사람은 모두 부인이다.

林梯 「南溟小乘」

園果最稱金色橘 / 盤飧多用玉頭魚 / 木桶汲泉女兒負 / 家家築石作門閭

과원의 과실은 금빛나는 귤을 최고로 여기고 / 소반 위의 반찬은 대부분 옥돔을 쓰
네 / 나무통을 등에 진 여아는 샘물을 길어오는데 / 마을 담과 문은 집집마다 돌을
쌓아 만들었네

② 李元鎮, 『耽羅志』(1651년 6월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재임 26개월여 동안의 자
료를 정리하고 동국여지승람과 김정희의 제주풍토록 참고하여 편찬)

背負木桶 而無頭戴者

등에 나무 물통을 지고 다니며 머리에 이지는 않는다.

토를 기록한 책인 『규창유고』 「제주풍토기」에는

섬안에 물을 길어오는 여인들은 머리 위에 이지 않고 등에 진다. 벌통모양과 같은 긴 통을 만들어 물을 길어 등에 지고 간다...⁸⁾

고 하여 물운반용 나무통의 모양이 '벌통모양의 긴 나무통'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1706년 이해조가 제주 어사로 부임하여 제주 풍속을 60수의 시로 남긴 『명암집』 「기도중산천풍속」에도

남녀가 모두 나무통을 등에 지고 다니나 머리에 이지 않는다...⁹⁾

고 하여 18세기 초반까지도 물운반용 용기를 나무통으로 묘사하고 있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문헌상에서 도기질의 병을 묘사한 글로는 이증이 제주안해겸순무어사로 활동할 당시 제주의 실상을 일기체로 기록한 『남사일록』(1679~1680)에

집집마다 항아리 속에 뱀 푸닥거리할 술 / 병을 진 촌 아낙네 구슬픈
방아노래¹⁰⁾

라고 하여 '甬', '負瓶'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이 시에 사용된 '甬'이

8) 李健, 『葵窓遺稿』 「濟州風土記」

島中女人之汲水者 不戴於頭而負於背 作一長桶 如蜂桶之狀 汲水負行

9) 李海朝, 『鳴巖集』 「記島中山川風俗」

男女皆負木桶而不戴

10) 李增, 『南槎日錄』

家家甬裏贊蛇盃 / 負瓶村婦杆歌苦

라는 표현은 ‘甕’이라는 한자와 동일한 뜻으로, 옹기 혹은 독, 항아리 등을 표현할 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瓶’ 또한 도기 혹은 자기질의 병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들 표현이 앞서 제시했던 최부의 「탐라시」의 표현과 동일한 형태로 보아 시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시기 이후의 기록들에서 점차 물운반용 옹기의 표현이 나무통에서 물항아리 또는 물병으로 바뀌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계속하여 ‘물항아리’의 표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제주도 대정현에서 유배생활을 한 임징하가 쓴 「탐라잡시」(1727)에 제주도 여인네의 삶을 노래하면서

멜감에다 밤이면 길쌈을 짜며 / 물동이 지고 샘에서 맑은 물을 길어오네...11)

라는 구절이 있다. 이 시에서는 ‘負甕(부양)’이라 하여 물항아리를 ‘甕’이라 하였다. ‘甕’이라는 그릇의 형태에 대해서는 『선화봉사고려도경』권31 기명2에 ‘油甕(유양)’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대체로 술그릇[酒尊]과 같다12)고 하였고 『세종실록』오례의 명기조 ‘酒尊(주준)’의 그림을 보면 주둥이가 좁고 동체 상부가 둥글며 하부로 좁아지는 형태의 항아리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



『世宗實錄』五禮儀 ‘酒尊’

- 11) 任徵夏, 『西齋集』 「耽羅雜詩」
打柴供夜績 / 負甕汲新泉…
- 12) 『宣和奉使高麗圖經』卷31 器皿2.
油甕之狀略如酒尊

기에 쓰여진 조관빈의 「탐라잡영」(1731~1732)이라는 시에도

몸을 드러낸 시골 아낙 옷자락도 여미지 않고 / 멀리서 샘물 길어 물병을
지고 가네...¹³⁾

라고 하여 물병을 등에 진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 이 시기에 이미 등에
지는 물항아리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조
정철의 「탐라잡영」(1777~1805)이라는 시에서 더욱 확실히 나타난다.

정의성 소녀들 띄약별에 / 아래로 치마도 아니고 위로 적삼도 아닌 옷을
입고

십자로 근방 성 바깥문에서 / 물병 지고 물 길러 가며 재잘거리네
물 길는 여자들은 큰 병을 대바구니에 넣어 등에 지고 간다!¹⁴⁾

위의 시에는 물병을 진 소녀들의 모습을 묘사하였고 시 말미에 붙은
해설에는 ‘大瓶(대병)’과 ‘竹筐(죽광)’ 즉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주
의 물항아리인 ‘허벅’을 대바구니 안에 넣어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어 이 시기에는 이미 이러한 허벅과 대바구니를 이용한
물운반 형태가 일반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기록들은 물론 제주도의 용기제작 개시시기를 설명해 주는 직
접적인 자료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제주의 대표적인
물운반용 항아리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가 곧 제주의 용기제작개시 시

13) 趙觀彬, 『梅軒集』 「耽羅雜詠」(대정현 유배시 풍속을 시로 적은 것)
村女露身裙不成 / 遠泉汲處負瓶行…

14) 趙貞詰, 『靜軒瀛海處坎錄』 「耽羅雜詠」(정의현에 유배된 기간에 본 풍속을 노래)
旌城少女值朱炎 / 下不爲裳上不衫 / 十字街頭闌闌也 / 負瓶汲水語喃喃
汲水女 以大瓶納竹筐 負而行

기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물운반용 용기가 나무통에서 물항아리로 바뀌는 시점 즈음에 제주도에서 용기제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는 전술한바와 같이 모든 가정의 필수품인 물운반 용기의 경량화와 물운반시 물흘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형 개발은 가장 최우선의 과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제작초기 물항아리의 기형이 현재 알려진 ‘허벅’의 형태로 처음부터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는 ‘허벅’이라는 기형이 타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제주의 물운반용 용기로, 식수가 부족했던 환경으로 인해 멀리까지 가서 물을 운반해와야 했던 제주민의 오랜 경험에 의해 탄생된 기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기제작기술의 유입과 동시에 만들어 질 수 있는 기형이 아니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의 숙련을 거쳐 만들어진 기형일 것으로 이해된다¹⁵⁾.

이러한 점과 문헌을 통한 운반용 물병의 사용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늦어도 대략 17세기 후반경에는 용기생산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18세기 후반 편찬된 『濟州邑誌』 「大靜懸誌」道路條에 ‘茄味藪 甕店(가미수 웅점)’이라는 용기 판매점의 등장을 통해 제주도 용기생산, 판매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도 용기제작기술의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기술유입에 대해 서술한 문헌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단편적인 언급을 통해 제주도로 유입되는 기술의 경로를 추정해 보았다.

고대의 해상을 통한 이동은 연안의 육지를 지킴삼아 항해하는 地文航

15) 허벅은 어깨부분이 매우 넓어 제작하기에 까다로운 기형으로 분류되며 제주의 용기 장인 중 허벅을 잘 만드는 장인을 최고로 대우했다는 전언을 통해서도 그 기형의 정착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절대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제주도와 인접한 각 지역간의 절대거리를 살펴보면 해남반도 85km, 고흥반도 110km, 진도 105km, 거제도 205km, 대마도 230km 등이다. 수치상의 거리로 볼 때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남해안 일대이며 그 중 전남해안 일대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와 전남해안 사이에는 제주도에서 48km 정도 떨어진 추자도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 입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였다¹⁶⁾.

이러한 실질적인 거리외에 전남해안 지역이 예로부터 제주도의 실질적인 관문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전남 강진이 탐라가 신라에 왕래할 때의 포구여서 탐진현으로 개명한 사실¹⁷⁾이 기록되어 있고, 『고려사』지리지에는 ‘탐라현…제주로 가는 이 세 곳(나주, 해남, 탐진)의 선박은 모두 이 섬(추자도)을 거쳐서 사서도, 대화탈도, 소화탈도 등을 지나 제주의 애월포나 조천관에 닿게 된다¹⁸⁾’라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는 당시 전남 강진이 제주도의 對한반도 진출 거점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고려사』의 기록에서도 나주, 해남, 강진 등지의 전남해안에서 추자도를 거쳐 제주의 애월포와 조천관에 닿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전라도를 통해 물품 매매를 하고자 제주도로 들어오는 선박의 왕래에 대해서는 『고려사』예종 6월 경술조(1101)에 ‘진도현 주민 한백 등 8명이 물품 매매차 탁라도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 송나라 명주

16)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출판사, 1995, 40~43쪽.

17) 『三國史記』卷36.

耽津縣 本百濟冬音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18) 『高麗史』地理志 耽羅縣條

耽羅縣…右三處舟船 皆經此島 過斜鼠島大小火脫島 至于涯月浦朝天館

에 표착하였다¹⁹⁾라 하여 진도에서 탐라로 물품 매매를 위해 상인이 왕래하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용한 이제현의 『의재난고』 「탐라곡」의 내용을 보면 전라도의 장사꾼들이 쌀과 청자를 싣고 제주도로 들어오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는 주로 전남해안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왕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곳을 통해 한반도의 물품이 제주도로 유입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상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매매 품목에는 탐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았던 도자기류, 쌀 등의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품목을 모두 전라도 지역의 생산품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물류의 이동거리, 비용 등을 따져볼 때 전라도 지역 생산품이 우선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의 양상을 통해 제주도에서 옹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시점의 기술 유입 경로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익태의 『지영록』 「홍화각중수기」(김진용, 1649)에

이 땅에는 본래 와장과 목공으로 솜씨 좋은 사람이 없어서 모두 바다 건너 가까운 읍에서 불러왔다...²⁰⁾

라는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기록은 제주목의 관아건물 중 하나인 홍화각을 중수하는 공사에 참여할 솜씨 좋은 와장과 목공을 구하는 내용인데, 당시 제주도에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솜씨 좋은 장인이 없어서 모두 바다 건너 가까운 읍에서 불러서 일을 추진하고

19) 『高麗史』睿宗 八年 六月 庚戌
珍島縣民漢白等八人 因賣買往毛羅島 被風漂到宋明州
20) 李益泰, 『知瀛錄』 「弘化閣重修記」(金晉鎔)
此地本無瓦匠與木工之妙手 皆招於越海近邑而致之...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자들의 유입은 옹기제작기술과도 연관이 있어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체 옹기제작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릇을 만드는 행위보다 가마를 축조하는 기술이 더욱 고난위도의 작업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기술자의 직접적인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술의 유입처 또한 왕래가 잦았던 전라도 지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에 기술할 전라도 지역의 가마 구조나 옹기제작 기술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Ⅲ. 타지역 옹기가마 구조의 변화²¹⁾

제주도 옹기가마의 연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지역 옹기가마와의 비교는 어떻게 보면 매우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부분이 현대적인 구조로 개량되어 사용되고 있고 자기가마의 요소가 많은 부분 결합되어 있으며, 특히 제주도 옹기가마의 경우는 제주만의 형태로 완전히 변형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타지역 옹기가마 구조를 통해 각 지역의 가마구조 변화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1920년대 후반 일본조사단에 의해 조사된, 당시 운영되었던 몇기의 옹기가마 구조를 통해 이들 가마의 발전과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옹기가마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0년대 이후 하동 고이리, 칠곡 가천동, 청도 순지리가마를 시작으로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

21) 가마 구조의 명칭은 지역마다, 가마의 종류마다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옹기가마 구조의 명칭은 아궁이, 아궁이를 포함한 연소실, 번조실, 굴뚝, 굴뚝을 포함한 연도부, 측면출입구, 불창구멍, 불터 등 일반적인 도자기가마의 구조 명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정이며, 조사는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그 중 경상도지역은 전국적으로 옹기가마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며, 시기적으로도 16세기경의 양상부터 20세기까지 옹기가마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유구의 상태가 양호하여 가마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도 순지리가마는 번조실과 연도부 일부가 남아있는 옹기가마로, 16세기 전반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마의 잔존길이는 20m 정도이며 평균 경사도는 15°내외이다. 가마는 지표면을 20~40cm 정도 굴착하고 축조하였으며 지표면에서 벽체로 올라가는 부분의 외측에는 30cm 정도 크기의 돌을 일렬로 놓아 벽체를 보강하고 있다. 연도부 끝에는 직경 40cm 크기의 연기배출구멍이 1개 남아있어서 대략 2~3개의 배연구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²⁾.

칠곡 가천동에서는 능선의 사면에 조성된 2기의 가마가 조사되었다. 1호가마는 번조실과 연도부가 남아있다. 잔존길이 14m, 가마 폭 2.6m, 경사도 19°이다. 번조실 바닥은 모두 4회에 걸쳐 보충되었으며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도부는 가마바닥에 판상할석을 일정한 간격으로 3곳에 2~3단 쌓아올려 4개의 배연구멍이 있는 형태이다. 2호가마는 연소실에서부터 연도까지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있다. 전체길이는 25m이며 가마의 최대폭은 2.8m이다. 연소실은 자연석으로 쌓고 점토로 틈을 메워 축조하였다. 연소실 바닥은 번조실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높아지며 연소실과 번조실의 경계에는 높이 20cm 정도의 불턱이 형성되어있다. 번조실은 긴 장방형이며 평균경사도는 20°이다. 가마의 폭은 연소실에서 연도부쪽으로 갈수록 조금 넓어지는 형

22) 경남대학교박물관, 『청도 순지리 옹기가마터』, 1994.

태이다. 가마의 벽체는 자연석과 점토를 섞어 축조하였다. 연도는 1호와 마찬가지로 가마바닥에 3개의 격벽을 세워 4개의 연통을 두었다. 가마 내부에는 도지미로 사용했던 편편한 돌이 확인되고 있다²³⁾.

영주 상출동가마는 능선의 사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연소실과 번조실이 남아있다. 가마의 잔존길이는 20m, 너비 1.5~2.3m 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연소실과 연도부 쪽에서 가마폭이 다소 축소된 형태를 보이며 출입구는 가마의 좌측 중앙부와 아궁이부분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마내부에서 별다른 구조적 특징은 확인할 수 없다. 조업시기는 18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⁴⁾.

왜관 봉계리가마(1호)는 자연경사면에 자리하며 연소실, 번조실이 남아있다. 가마의 잔존길이는 약 23m, 너비는 2.0~2.5m이다. 연소실은 20~50cm 정도의 할석과 점토를 혼합하여 축조하였으며 가마의 우측에는 연소실에서 번조실로 이어지는 지점과 번조실 몇군데에서 출입구 흔적이 확인된다. 번조실의 내부에는 별다른 시설물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바닥에 도지미로 사용되었던 판상의 할석이 깔려있다. 가마는 이곳에 천주교 박해를 피해 도피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살던 獨家村이 있었다는 『칠곡군지』의 기록과 가마 주변에서 조사된 청동 십자가(목주)가 출토된 토광묘, 가마 폐기물층에서 공반 출토된 백자 등으로 볼 때 19세기 말~20세기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⁵⁾.

다음으로 전라도 지역의 옹기가마 중 발굴을 통해 가마구조를 확인할

23) 경북대학교박물관, 『칠곡 가천동요지』,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91.

24) 대동문화재연구원, 『영주 상출동 98번지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2008.

2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봉계리 골프장 조성사업부지 내 칠곡 봉계리유적(Ⅱ구역)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2008. 3.

수 있는 곳은 나주 우산리가마와 해남 백야리가마가 있다. 먼저 나주 우산리가마(2호가마)의 경우는 번조실만 8.6m 정도 남아있고 가마바닥의 폭은 1.2~1.5m로 상단부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가마는 모두 7차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바닥의 경사는 18°이다. 가마축조는 생토면을 파고 축조하였으며 자연 경사면을 따라 축조한 등요이다. 번조실 내부에서는 별도의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가마의 운영 시기는 인화, 무문분청사기의 공반출토 양상으로 보아 15세기 중반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⁶⁾.

해남 백야리가마(1호가마)는 아궁이와 번조실이 남아있으며 잔존길이 14.2m, 가마폭 2m이며 번조실 바닥의 경사는 15°이다. 가마는 2차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1차가마는 번조실만 남아있고 2차가마는 아궁이와 번조실이 잔존한다. 아궁이가 남아있는 2차가마의 경우 연소실의 불턱 지점에서 번조실로 60cm 정도 지점의 서벽에 출입구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된다. 번조실 내부에서는 별다른 시설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백야리가마 역시 구릉의 경사면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축조한 등요로, 가마운영시기는 공반 출토되는 백자 등으로 보아 17~18세기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⁷⁾.

이상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마의 구조를 보면 모두 자연 경사면을 이용하여 가마의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마의 규모는 아궁이에서 굴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너비는 2~2.5m 정도, 길이는 대략 20m 정도로 추정된다. 가마의 좌측 혹은 우측에 1~2개의 측면출입구 흔적이 확인되며 아궁이와 번조실 사이에는 고도차가 있는 불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격벽시설의

26) 호남문화재연구원, 『나주 우산리요지』, 2004.

27) 호남문화재연구원, 『해남 백야리요지』, 2004.

흔적은 뚜렷치 않다. 번조실의 내부에는 별다른 시설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굴뚝은 가마 뒷벽의 하단에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몇 개의 연통을 설치한 흔적이 있다. 이상의 이러한 구조는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의 가마에서 뚜렷한 지역차를 보이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뚜렷한 변화없이 장기간에 걸쳐 가마 구조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발굴 자료는 아니지만 1927년 일본인들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던 용기가마 중 3기를 조사한 예가 있다²⁸⁾. 이들 자료는 20세기 초반의 용기가마구조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우선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에 위치한 가마로 상기 발굴조사의 예와 마찬가지로 자연경사면에 설치되었다. 가마의 길이는 약 23m, 너비는 약 1.6~1.9m의 세장한 구조이다. 천장은 점토를 이용해 아치형으로 쌓았으며 천장과 벽체의 어깨부분에는 높이 약 27cm, 너비 약 18cm의 연료 투입구 겸 가마내부 번조분위기를 살피는 불구멍을 오른쪽에 42개, 왼쪽에 44개 설치하였다. 연소실은 길이 약 2.1m, 중앙너비 약 1.7m, 높이 약 2m의 규모로 축조되었다. 연도부의 뒷벽 아랫부분에 4개의 연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마의 오른쪽 2곳에 측면출입구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오학리가마 또한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경사면에 길이 약 24.7m, 너비 약 2.1~2.6m 정도로 축조되었다. 점토로 쌓은 아치형의 천장과 벽체의 어깨부분에는 길이 27cm, 너비 12cm의 불구멍이 좌에 42개, 우에 43개 설치되었고 연도부 뒷벽 중앙에도 1곳에 불구멍이 설치되어있다. 연도부에는 4개의 연통을 두었다.

28) 朝鮮總督府,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鷄龍山麓陶窯址調査報告』제1책, 1929.

연소실은 길이 약 4.3m, 너비는 중앙이 약 1.8m, 높이 약 1.6m이며 완만한 아치형의 아궁이가 있다. 연소실과 번조실의 경계에는 격벽을 설치하였으며 격벽의 아랫부분에 3개의 불창구멍이 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대전군 유성구 구암리가마 역시 경사지에 축조되었다. 이 가마는 위의 두 곳 가마와는 달리 전체적인 형태가 'J'형으로, 경사면을 따라 길이 약 13.8m, 너비 약 1.6~2m 규모의 번조실을 두고 이 번조실과 직각으로 길이 약 4.3m, 너비 약 1.4m의 연소실을 축조하였다. 점토로 아치형 천장을 만들고 그 천장의 양어깨에 높이 약 30cm, 너비 24cm의 불구멍을 수십개씩 만들었다. 뒷벽에 4개의 연통이 있다. 번조실의 최하단에 기물의 반출, 반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 좌측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있다.

위의 1920년대 운영된 옹기가마를 보면 가마의 외형상 크게 2가지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봉황리가마나 오학리가마와 같은, 소위 뿔불통가마(대포가마, 용가마)로 불리는 가마의 형태로 이러한 구조는 발굴조사의 예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확인되고 있어 옹기생산 초창기부터 지속된 전통적인 가마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경상도, 전라도 뿐만아니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가마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1920년대의 경기도 오학리가마의 경우 연소실과 번조실의 경계에 격벽이 설치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의 구조는 구암리가마의 형태로 일명 조대불통가마로 불리는 가마이다. 이 가마는 번조실에서 직각으로 꺾여 연소실을 설치한 형태이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마는 모두 봉황리가마나 오학리가마와 같은 계통이며 구암리가마처럼 연소실과 번조실이 직각에 가깝게 꺾여 축조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6,70

년대의 조사에 의하면 충청도와 전라도 경계지방에서 운영되었던 재래 식가마로, '조대'라는 것은 골통담뱃대(대통) 모양으로 생긴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가마의 형태가 이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고되고 있다²⁹⁾.

이상 발굴조사나 1920년대 운영되었던 가마의 모습을 통해 옹기가마의 형태를 살펴보면, 자연경사면 위에 설치된 등요로 연소실, 번조실, 연도부로 구성되며, 천장은 아치형으로 축조되고 천장과 벽체의 어깨부분에는 여러 개의 불구멍을 두고, 가마의 좌 혹은 우측 1~2곳에 측면출입구를 두고 있다. 가마의 내부에는 발굴조사의 예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소실과 번조실의 경계의 얇은 불턱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20년대 조사의 예에서는 경기도 지역 가마에서만 연소실과 번조실의 경계에 격벽이 설치되고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벽 구조는 바닥면만 남아있는 발굴조사상에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격벽 설치에 관하여 벽이 없는 단순한 불턱과의 선후관계나 지역성을 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옹기가마는 오랜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내부의 격벽설치 등 약간의 차이만 보일 뿐 뿔불통가마라는 동일한窟형태의 가마가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특색있는 가마의 형태인 조대불통가마와 자기가마의 형태로 개량된 칸가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29) 정명호, 「옹기장과 제조기술에 대한 고찰(상)」, 『실학사상연구』 7, 무악실학회, 1996, 204~205쪽.

30) 1960~70년대의 조사에 의하면 충청도와 전라도 경계지역에서 운영된 가마의 형태인 조대불통가마는 이미 뿔불통가마로 다수 개량되어 있었고, 1980년대 초반의 전국 옹기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총 140개소의 옹기점 중 전통적인 옹기가마형태인 뿔불통가마의 수는 57개소이며 나머지 83개소는 이미 자기가마구조로 개량된 칸가마가 운

IV. 제주도 옹기가마 구조와 그 연원

제주도 옹기생산의 시작은 명확하진 않지만 II장에서 문헌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늦어도 17세기 후반경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의 옹기생산 초창기의 옹기 양식이나 가마 구조 등에 대한 발굴조사나 층위조사가 되어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하기 어렵다. 다만 가마축조기술을 포함한 옹기제작기술이 온전히 제주도 자생적인 기술이 아닌 육지부에서 전래되어온 기술임을 생각한다면 초창기 제주도 옹기가마의 모습은 육지부의 같은 시기 옹기가마의 모습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가마축조술의 경우 옹기제작술에 비해 단기간내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마축조술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제주도에 들어와 가마를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현재 가마의 상부 구조가 남아있는 최종 운영시기의 제주도 옹기가마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 가마가 육지부의 일반적인 옹기가마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전술한 문헌 내용, 타지역 옹기가마의 일반적인 구조와 더불어 제주도 옹기제작기술 중 성형기법 상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측면과 육지부 성형기법과의 영향관계를 통해 제주도 옹기기술의 유입경로를 다시 한번 추정해보고자 한다.

현재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마는 모두 7기가 남아있다. 이들 가마의 최초 운영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1940년대 후반의 4·3사건과 196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폐요되고 일부가 1980년대까지 운영되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들 현존하는 가

영되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명호, 「옹기장과 제조기술에 대한 고찰(하)」, 『실학사상연구』8, 무악실학회, 1996, 185~227쪽.

마를 통해 제주도 용기가마의 최종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³¹⁾.

제주도에서는 가마를 ‘굴’이라고 부른다. 정확한 어원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마의 생김새에서 기원한 명칭으로 여겨진다. 제주의 용기가마는 육지부 용기가마의 명칭이 가마구조나 형태에 따라 분류되어 이름붙여지는 것과는 달리 가마에서 번조되는 그릇의 종류에 따라 노랑굴과 검은굴로 구분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생산품의 색상과 관련된 명칭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선 현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노랑굴은 6기가 남아있다. 모두 타 지역의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된 등요이다. 노랑굴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랑굴에서 생산되는 기물의 색깔은 노란색 혹은 붉은색 계열, 즉 산화 환경에서 번조된 기물을 생산하는 가마임을 알 수 있다. 산화염과 환원염의 차이는 산소 공급량으로 구분되는데 산화염의 경우는 가마 내부의 산소 소모량보다 산소가 많은 상태로, 여분의 산소가 태토 안에 있는 철분과 결합하여 산화제이철(Fe_2O_3)로 되어 그릇은 붉은색 계열이 된다³²⁾. 이러한 산화 분위기에서 열은 쉽게 상승하며 일반적으로, 후술 할 검은굴보다는 고온에서 번조가 이루어진다.

형태가 남아있는 6기의 노랑굴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역리노랑굴은 형태가 남아있는 용기가마 중 보호각과 담장이 둘러져 있는 등 가장 잘

31) 제주도 용기가마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은석, 「제주도 용기가마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고찰-환경면, 대정읍 일대 용기가마를 중심으로-」, 『논문집』21, 제주교육대학교, 1991 ; 김효영, 「용기의 제작기술 보존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오영심, 「제주도 전통 사회의 용기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대정읍 구역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경효,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원광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2) 김원룡, 『한국고미술의 이해』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205쪽.

정비되어 있는 가마이다. 가마는 아궁이 앞부분인 부장쟁이를 포함하여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아궁이부터 굴뚝까지의 길이는 약 16.5m, 번조실 너비 약 1.3m, 높이 약 1.5m이다. 아궁이는 돌을 이용하여 너비 70cm, 높이 60cm의 'ㄱ'형태로 축조하였다(사진 1). 연소실은 번조실 바닥보다 다소 깊게 굴착되었으며 연소실과 번조실의 경계에는 격벽이 설치되어있고 격벽의 좌우에 장타원형의 불창구멍이 뚫려있는 형태로 조성되었다. 가마의 우측에는 가마에 기물채임을 위한 아치형의 측면출입구가 있으며 가마벽체와 천장의 경계부근에는 좌우에 각각 15개 이상의 불구멍이 있다. 가마의 뒷벽에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마의 바닥부분에 4개 정도의 사각형의 구멍을 만들었으나 뒷벽의 일부가 유실되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가마의 축조는 연소실은 천장까지 벽돌형태의 현무암을 사용하였으며 번조실은 벽체는 돌로 쌓아 내부는 점토마감하였고 천장부는 점토벽돌을 이용하여 아치형으로 축조하였다(사진 2). 구역리노랑굴은 남아있는 옹기가마 중 유일하게 점토벽돌을 사용하여 천장을 축조한 예이다. 현재 가마의 좌우에 넓게 가마폐기물층이 형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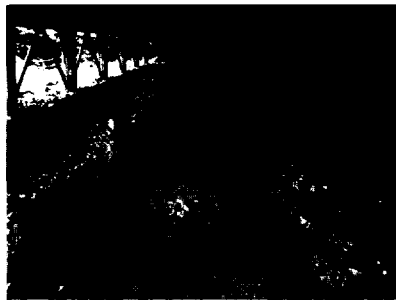


사진1. 구역리노랑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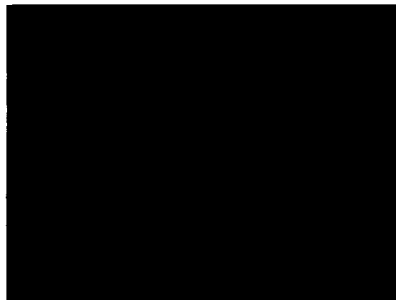


사진2. 구역리노랑굴 천장축조상태

신평리노랑굴은 과수원 진입로 개설로 인해 격벽 앞쪽의 연소실이 거

의 파괴되었고 천장의 일부와 뒷벽도 완전히 유실되었다. 가마의 잔존 길이는 약 16m, 너비는 1.6m이다. 연소실과 번조실의 경계에 점토와 돌을 이용하여 쌓은 격벽이 있으며 격벽의 좌우에 2개의 불창구멍이 있다. 격벽 바로 위 가마의 우측에 아치형의 측면출입구를 두었다(사진 3). 가마의 벽체는 20~60cm 정도 크기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2~3중으로 두껍게 쌓았으며 천장은 두께 10cm 이내의 판석형태의 현무암을 벽돌처럼 사용하여 아치형으로 축조하였다(사진 4).



사진3. 신평리노랑굴 측면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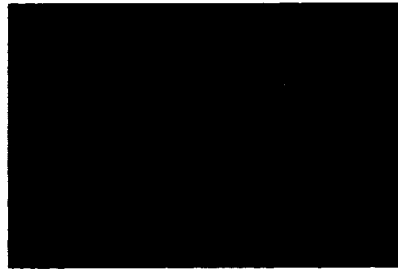


사진4. 신평리노랑굴 천장축조상태

신도리노랑굴은 아궁이부터 굴뚝부까지의 가마 전체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가마의 전체길이는 약 15m이며 번조실의 너비는 약 1.6m이다. 아궁이는 긴 판상의 현무암 3개를 이용하여 ‘ Π ’형태로 축조하였다. 다른 가마와 마찬가지로 격벽과 2개의 불창구멍이 설치되었으며 가마의 우측에 측면출입구를 두었다. 현재 측면출입구가 폐쇄된 상태여서 가마 내부의 모습은 파악하기 어렵다. 신도리노랑굴은 부장쟁이를 포함한 가마의 외형은 완전하게 남아있으나 천장 일부가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수되는 등 가마정비시 원형이 일부 훼손되었다.

고산리노랑굴³³⁾은 가마의 전체적인 외형은 남아있으나 가마의 우측

33) 가마가 있는 주변 밭 주인인 현일효씨(여, 78)에 의하면 이 가마는 할머니의 시아버

외벽은 벗겨져 나가 붉은 소토면이 드러나 있다. 아궁이는 높이 55cm, 너비 60cm의 사각형으로 축조하였다. 격벽은 완전히 파손되어 남아있지 않으며 번조실도 많은 부분 파손되어 가마 내부에 많은 돌이 쌓여있다. 측면출입구는 다른 가마의 예와 달리 가마의 좌측에 아치형으로 축조하였다.

산양리노랑굴은 농로 개설로 인해 훼손된 아궁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가마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가마의 잔존길이는 약 13m, 번조실 너비 약 1.5m이다. 연소실의 경우 다른 가마는 대부분 격벽에



사진5. 산양리노랑굴 연도부(굴쪽)

서 아궁이 쪽으로 경사지게 축조된데 비해 산양리노랑굴은 격벽에서 아궁이 쪽으로 경사지다 아궁이 부분이 다시 높아지는 형태로 축조되었다. 가마의 뒷벽 하단에 직육면체의 현무암을 유사한 간격으로 세곳에 두어 4개의 연기배출구를 내었다(사진 5).

조수리노랑굴은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가마로 전체규모는 길이 약 20m, 번조실 너비 약 1.7m 이다. 아궁이는 다른 가마의 예와 달리 아치형으로 축조되었으며 가마의 좌우는 현무암을 사용하여 약 1m 두께의 보호벽을 쌓았다. 연소실과 번조실의 경계에는 2개의 불창구멍이 있는 격벽이 설치되어있으며 격벽을 경계로 연소실쪽으로 급격한 경사가 있다(사진 6). 가마의 좌측에 아치형의 측면출입구가 설치되었고 가마벽체와 천장의 경계에 다수의 불구멍을 두었다(사진 7). 가마의 뒷벽은 본래

지가 소유했던 가마로 그 가족들에 의해 30여년 전까지 운영되었다고 한다.

의 가마에서 측면벽체만 남겨둔 채 약 1.5m 정도 줄여서 다시 설치하였으며 뒷벽의 하단에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4개의 구멍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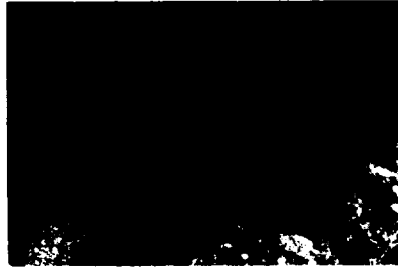


사진6. 조수리노랑굴 격벽 및 불창구멍



사진7. 조수리노랑굴 불구멍

이상으로 일반적인 노랑굴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마의 전체구조는 연소실과 번조실로 구분되며 연소실 앞에는 아궁이가, 번조실의 끝에는 번조실 바닥과 거의 같은 위치에 4개 정도의 사각형 구멍을 내어 굴뚝의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아궁이를 포함한 연소실은 '부장'이라고 불리며 아궁이는 조수리노랑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소 긴 판상의 석재를 사용하여 'ㄱ'형태로 축조되었다. 연소실은 번조실의 바닥보다 다소 깊게 굴착하였으며 연소실과 번조실의 경계에는 격벽이 설치되어있고 격벽의 좌우에 장타원형의 불창구멍이 뚫려있는 형태로 조성되었다.

번조실 벽체는 직경 30~40cm 정도의 현무암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아올렸으며 천장은 10×20cm 정도의 판석상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아치형으로 축조하였다. 구억리노랑굴의 경우만 점토벽돌을 만들어 현무암 판석을 대신하고 있다. 연소실과 번조실의 경계부분인 격벽 설치 구간 약간 위쪽으로는 가마의 좌 혹은 우측에 기물의 재임을 위한 출입구가 아치형으로 나 있으며 천장과 벽체의 경계부분에는 가마의 좌우에

여러개의 불구멍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불구멍으로는 가마내부의 번조분 위기를 살피며 땀감을 보충하는 투입구로 사용된다. 번조실의 내부에는 별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번조실바닥은 경사를 두어 연소실의 화기가 자연스럽게 굴뚝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였다. 번조실의 뒷벽은 수직으로 마감하고 하단부에 정육면체의 현무암 또는 긴 판석상의 현무암을 사용하여 4개 정도의 연기 배출구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랑굴은 모두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전체 경사도는 20°내외이다. 가마의 평면형태는 연소실의 경우 번조실의 경계 부분에서 아궁이쪽으로 폭이 다소 좁아지는 형태이며 번조실은 내부 폭의 변화가 거의 없는 평면 직사각형에 가깝다.

다음으로, 검은굴은 현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1기 남아있다. 검은굴이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은색 계열의 기물을 생산했던 가마를 일컫는 명칭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물의 색이 검은색 계열, 즉 환원환경에서 운영되었던 가마임을 추정할 수 있다. 가마의 환원 소성은 산소공급을 줄이고 연료의 양을 많이 하여 불완전 연소 상태에서 기물을 구워 내는 방법이다. 불이 연기에 휩싸이거나 연기를 내게 하는 무엇으로 인해 연소실의 산소 일부를 빼앗겼을 때, 태토 속에 있는 산소까지 끌어내어 탄소로 만드는 환원작용을 하기 때문에 태토 속의 철은 청흑색의 산화제일철(FeO)로 되어 계열의 기물이 만들어진다. 900℃ 정도부터 태토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을 환원시키는데 이 시점을 점토환원시기(body reduction)라고 한다. 이때 너무 강한 환원을 시키면 그릇에 기포나 금이 가거나 너무 짙은 색이 되어버린다. 1,100℃ 이상의 강한 환원소성은 철유나 동유, 청자, 백자 등의 유약에만 필요하고 점토에 철분이 섞여 있거나 보통의 유약일 때는 약한 환원소성만으로도 충분하며³⁴⁾ 검은굴의 생산품은 이런 환원분위기 속에서 생산되었다.

이러한 검은굴은 노랑굴에 비해 크기가 작고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다. 검은굴 역시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에 가까우나, 연소실쪽으로 다소 좁아지는 형태이다(사진 8). 아궁이는 노랑굴과 마찬가지로 'ㄱ'형태로 축조되었으며 연소실과 번조실사이에는 노랑굴에서와 같은 격벽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사진 9, 10). 가마의 측면에는 출입구는 두지 않았으며 불구멍 역시 없는 구조이다. 가마의 뒷벽을 아치형으로 축조하였는데 이 곳을 통해 가마내부로 기물을 재입하거나 번조 후 완성품을 꺼내는 출입구로 사용하였으며 굴뚝 역할도 하였다(사진 11). 가마 벽체는 노랑굴과 마찬가지로 현무암으로 수직에 가깝게 쌓았으며 천장부분은 아치형으로 축조하였다.

가마의 규모는 길이 약 8m, 너비 1.2~1.5m 정도로 노랑굴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조도 단순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검은굴의 경우 현재 1기만 남아있어 이를 검은굴의 일반적인 구조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사진 8. 구역리검은굴 전경



사진 9. 구역리검은굴 아궁이

34) 김원룡, 『한국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205쪽 ; 정동훈, 『도예가를 위한 가마짓기와 번조기법』, 디자인하우스, 1991, 102쪽.



사진 10. 구억리검은굴 내부



사진 11. 구억리검은굴 출입구(굴뚝)

제주도 옹기가마 중 노랑굴의 구조는 벽체나 천장의 일부구조를 제외한 평면 구조상으로만 살펴보면 아궁이의 형태, 연소실, 번조실, 굴뚝의 형태 등 육지부의 발굴조사된 가마의 형태나 1920년대에 운영되었던 가마들의 구조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벽체의 구성, 천장 아치형태 등은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 제주 노랑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육지부의 옹기가마는 벽체축조시 벽체 하단부에 중점적으로 부정형의 돌을 섞어 축조하며 그 상부에는 대부분 점토로 벽체를 구성하고 있다. 가마의 횡단면의 형태도 가마의 벽체를 가마 안 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하여 아치형의 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옹기가마의 경우 벽체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축조하고 있으며 축조재료는 벽체 상단까지 육면체의 현무암석재를 쌓아 그 표면에 점토를 바르는 형태이다. 벽체는 현무암석재를 2~3겹으로 두껍게 쌓은 예도 있어 벽체의 두께가 1m 이상 되기도 한다. 천장은 수직으로 쌓은 벽체 위에 완만한 아치형으로 쌓고 있다(사진 12).



사진12. 신평리노랑굴 벽체 및 천장 축조상태

이러한 제주 옹기가마의 벽체 구조는 가마를 쌓아올리는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육지부의 가마는 가마의 벽체부터 자연스럽게 내부로 기울어지게 쌓으면서 아치형의 지붕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천장의 하중을 벽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주도 옹기가마의 경우 천장의 하중을 수직의 벽체가 온전하게 받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어 이러한 가마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벽체가 육지부의 가마와는 다르게 두껍게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가마벽이나 천장에 돌을 위주로 축조하는 양상은 이러한 요소외에도 번조시 많은 영향을 주는 바람과 가마축조재료인 돌이 많은 자연환경적인 요인과의 관련이 있을 것이다³⁵⁾.

이러한 점은 옹기성형시 시유를 하지 않는데도 시유한 듯한 광택이 나는 제주옹기의 독특함 그리고 제주 환경에 맞게 발전해나간 가마의 구조와 함께 제주의 독창적인 옹기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가마 구조가 제주도에서 옹기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구조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초창기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가 전무하기 때문에 초창기의 구조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가마축조술을 포함한 옹기제작술이 제주도 본래의 토착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옹기제작상에 나타나는 기술적인 연원을 파악하면, 가마축조술도 그와 같

35) 천장아치의 형태에 따른 가마벽체의 축조모습은 공학적으로 더욱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며, 바람의 영향에 대해서는 타지역 가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아궁이 앞쪽 공간의 구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제주의 옹기가마에는 아궁이 앞쪽으로 둥글게 담장을 쌓아 아궁이쪽으로 직접적으로 바람이 들지 않도록 방풍벽을 쌓고 있다(부장쟁이). 이러한 구조는 제주도 옹기가마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시설로, 바람이 많은 제주의 환경에 맞게 변화·발전해 간 가마구조로 추정된다.

은 양상으로 유입된 것으로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전통적인 용기 성형기술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릇의 벽을 쌓는 타럼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타럼과정은 그릇의 벽을 만들기 위해 떡가래 혹은 질판 모양으로 길게 흙막대기를 만들어 그릇벽의 형태로 한단씩 테쌓기[輪積法/Ring]하거나 코일처럼 감아올리는 서리기[捲上法/Coil] 방법으로, 쌓는 방법과 질가래의 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지역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기술의 연원도 짐작할 수 있다.

타럼법은 배기타럼(배계타럼)과 쳇바퀴타럼으로 크게 나뉘지며 이 두 구분은 그릇의 벽을 만드는 질가래의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배기타럼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중부지방 일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 지방에서는 주로 둥근 떡가래 형태의 질가래를 한단 한단 쌓아올리는 테쌓기 방법으로 성형하며 경상도 지방에서는 코일처럼 감아올리는 서리기 방법으로 동체부를 성형한다³⁶⁾. 쳇바퀴타럼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점토를 판형태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어 테쌓기 방법으로 쌓은 후 수레질을 거쳐 기형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쳇바퀴타럼 방식은 현재 제주도 용기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판형태의 점토재료인 일명 '토래미'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판형태의 태토성형법은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는 방법이며³⁷⁾, 이러한 점을 통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고대로부터 발달한 항로를 통한 접근성의 용이, 제작 기술적인 공통점 등

36) 김효영, 「용기의 제작기술 보존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3~44쪽.

37)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전국의 용기가마를 조사한 정명호는 이 쳇바퀴타럼(채바퀴타럼) 성형법에 대해 전라남도 지방에서만 사용되는 기법이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하고 특수한 제작기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명호, 「용기장과 제조기술에 대한 고찰(상)」, 『실학사상연구』7, 무악실학회, 1996, 215~216쪽.

을 통해 제주도 옹기제작기술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 옹기가마의 축조술과 옹기제작술은 제주만의 모습으로 정착되어 있다. 가마의 축조에 돌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일명 ‘돌가마’로 지칭할 만한 가마의 구조, 옹기 성형에 있어서 전라도 지역과 제주도에 서만 사용되고 있는 ‘토래미’ 성형법 그리고 무엇보다 독특한 것은 별도의 시유를 하지 않고 번조하지만 가마내부의 환경과 태토 자체의 성분에 의해 시유된 듯한 효과를 내는 제주 옹기만의 특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모습이 제주도의 초창기 옹기생산 당시와 동일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옹기제작기술은 가마의 불때기나 태토의 성분 등에 따라 많은 부분 제약이 따르는 기술로, 바람이 많은 환경과 철분이 많이 포함된 태토의 특징 등으로 인해 점차 제주적인 것으로 변모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라도 지역의 기술적인 부분이 감지되며 고려시대 이래로 전라도 지방에서 곡식이나 자기 등의 물건을 팔러 제주도로 왕래했던 기록이나, 조선시대 제주의 관아수리를 위해 목공, 외장 등 기술자의 입도 그리고 전라남도 강진 등지에서 옹기를 팔기위해 들어온 옹기배가 산지항 등에 정박되어있는 사진자료³⁸⁾, 강진 칠량 옹기 배사공의 구술 내용³⁹⁾ 등을 통해 볼 때 이러한 교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판단된다.

38) 제주시,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2003, 50쪽.

39) 1960년대 초반 강진 칠량 옹기를 싣고 제주도로 팔러왔던 김우식씨의 구술자료에 의하면 당시 옹기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오는대는 강진에서 보통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강진에서 부산쪽으로 옹기를 팔러가는 것보다 1/4 정도 가까운 거리였다고 하고 있다. 김우식 구술, 김정호 편집, 『칠량 옹기배 사공 김우식의 한평생 찻다리 잡을라, 옹구 풀라, 밥해 묵을라』,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19, 1991, 92~93쪽.

V. 맺음말

제주도 옹기가마는 타지역과는 다른 외형으로 인해 세계 유일의 돌가마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옹기가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가 제주도에서 옹기를 제작하기 시작하는 초창기부터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의 옹기제작기술은 육지부의 옹기제작 기술이전을 거쳐 제주도의 환경에 맞게 정착되어간 제작기술로 이해된다. 이는 제주의 토제그릇 생산의 역사를 볼 때 '고산리식토기'로 불리는 적갈색토기의 생산 이후 조선시대 옹기생산시기까지 제주도에서 토제그릇의 생산에 있어서 오랜기간 기술적인 공백기가 있었으며 또한 노천요 혹은 수혈요와는 달리 고화도와 환원, 산화염 번조 환경 조절이 가능한 등요의 축조는 기술적인 축적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혹은 기술자의 유입 없이는 이러한 기술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 옹기제작 개시시기, 제작기술의 유입경로, 초창기의 옹기가마구조나 그릇의 형태 등은 논고의 전부분을 통해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사상태로는 그 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헌자료를 통해 옹기제작 개시시기와 기술의 유입경로 등을 부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타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옹기가마 유적을 통해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옹기가마 구조와 변화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옹기가마를 중심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운영된 옹기가마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 가마의 모습이 타지역의 일반적인 가마의 모습과 어떠한 부분이 변화되어

제주도적으로 정착되어갔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주도 옹기성형의 기술적 측면 검토를 통해 성형기술 유입의 경로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본 옹기제작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물론반용 옹기가 나무통에서 토제항아리로 변화되는 시기를 검토하여 17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기술의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의 제주도 유입향로와 고려시대 전라도지역 장사꾼의 입도, 조선시대 목관아 건물의 수리를 위해 들어온 전라도 지역 기술자의 유입 등을 통해 제주도와 가장 인접한 전라도 지역을 옹기제작기술 이전지역으로 보았다. 이는 제주도 옹기의 독특한 성형법이라고 할 만한 '토래미' 성형기술의 연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전라도 지역과 기술적인 유사성을 살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여러 정황을 통해 현시점에서는 전라도 지역을 기술 이전지역으로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마의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의 가마는 '돌가마'의 형태로 제주의 환경에 맞게 '제주적'으로 변모된 것으로 이해되며 기술 이전지역으로 추정되는 전라도 지역을 포함한 거의 전국적으로 일명 '빨불통가마'로 불리는 등요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옹기가 처음 제작되는 시기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물론 가마의 바닥부분만 남아있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연소실과 번조실사이의 격벽구조 등을 완전하게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에 있어서 지역적, 시기적인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상황은 제주도 초기 옹기가마의 구조에도 당연히 적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옹기제작기술이 제주도의 자생적인 기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육지부에서의 기술이전, 특히 기술자의 유입을 통해 가마축조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도 옹기가마의 초기형태도 분명 육지부의 가

마형태와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옹기가마는 바람 많고 돌 많은 제주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제주에 맞는 형태로 변형되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육지부의 기술이전에 의해 축조된 가마형태가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는 현재의 조사상태로는 짐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주의 것으로 정착해나간 제주 옹기의 역사를 파악하는 일은 제주의 문화를 정립하는데 매우 유익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초창기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 등의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보존되고 있는 몇기의 옹기가마 조차도 점차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초기의 옹기기술 유입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산재한 옹기가마터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각종 개발이나 경작 등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하루속히 사라져가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올바르게 전승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益齋亂藁』
『世宗實錄』
『冲庵集』
『葵窓遺稿』
『耽羅志』
『南槎錄』
『葵窓遺稿』
『靜軒瀛海處坎錄』
『梅軒集』
『西齋集』
『鳴巖集』

경남대학교박물관, 『청도 순지리 옹기가마터』, 1994.

경북대학교박물관, 『칠곡 가천동요지』, 『대구-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9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봉계리 골프장 조성사업부지 내 칠곡 봉계리유적(II 구역)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2008. 3.

김우식 구술, 김정호 편집, 『칠량 옹기배 사공 김우식의 한평생 찻다리 잡올라, 옹구 플라, 밥해 묵올라』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19, 1991.

김원룡, 『한국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대동문화재연구원, 『영주 상출동 98번지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지도위원회』, 2008.

수잔피터슨(김순배 역), 『도자의 기술과 예술』, 예경, 2001.

-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출판사, 1995.
- 정동훈, 『도예가를 위한 가마짓기와 번조기법』, 디자인하우스, 1991.
-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자연을 닮은 그릇, 옹기』, 2006.
- 제주시,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2003.
- 조선총독부,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鷄龍山麓陶窯址調査報告』제1책, 1929.
- 호남문화재연구원, 『해남 백야리요지』, 2004.
- 호남문화재연구원, 『나주 우산리요지』, 2004.
-
- 김은석,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고찰-한경면, 대정읍 일대 옹기가마를 중심으로-』, 『논문집』 21, 제주교육대학교, 1991.
- 김효영, 『옹기의 제작기술 보존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오영심, 『제주도 전통 사회의 옹기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대정읍 구억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경효,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원광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동희, 『한국옹기의 지역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정명호, 『옹기장과 제조기술에 대한 고찰(상)』, 『실학사상연구』 7, 무악실학회, 1996. 3.
- 정명호, 『옹기장과 제조기술에 대한 고찰(하)』, 『실학사상연구』 8, 무악실학회, 1996. 9.

Abstract

The Structure and Origin of Jeju's Pottery Kilns

Kim, Jung-Sun*

The pottery kilns on Jeju Island are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The island's unique and stone-built structures are recognized as the ones of their type in the world. As such, they gather great attention from experts. It is true that the old, remaining Jeju kilns have a unique shape and structure not found in other regions.

Nevertheless, it is not possible to trace and collect detailed information on when the pottery production initially began on Jeju Island; how the technique was first introduced to the island; what kind of structure that the original kiln had, and the features and designs of the initial pottery, from current site investigations. Hence, in order to trace the history of the pottery techniques of Jeju Island, the study looks into preceding literature about the structures, their production methods and techniques, found through excavation efforts in other regions.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very inception of pottery making on the island can be estimated as at the end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estimation is based on the observed change of the water carrying container, from a beehive shaped wooden container, to the earthenware pot (Heobeok in the Jeju dialect).

* Curator, Jejustonepark

Completed the doctoral course of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arthistory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o identify the route through which the pottery technique was transferred to the island, the study refers to the sea route that has been used since ancient times. Namely, the immigration route of the merchants from Jeolla Province, located in the southwest region of mainland Korea, and the arrival of the technicians, also from the Jeolla region. Their original purpose to come to the island was to repair the structure of Jeju Mokgwana,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presided over by the Magistrate of Jeju,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Based on such historic surroundings, the Jeolla region is assumed to be the benefactor of the technology transfer. The assumption is also supported by the similarity of techniques between the Jeju and Jeolla regions. This is supported by research conducted to identify the origin and inception of Jeju's unique pottery typology called 'Toraemi' in the Jeju dialect, meaning clay plates to form the rim of a pot. The study, at least for now, considers the region of Jeolla Province as the origin from where the Jeju pottery technique was transferred.

The study also investigated on the kiln structure. The Jeju pottery kilns have maintained the unique structure of 'stone kiln'. It is understood that the originally transferred kiln building method is transformed into the uniqueness of the 'Jeju style' in order to adapt to the natural environment of Jeju Island. The current types of Jeju kilns are Noranggul and Geomeungul depending on the types of pottery produced from the kilns. The Noranggul, literally meaning a yellow cave, is named for the baked final pottery products, show with either yellowish or reddish brown colors. The Geomeungul, with its literal meaning of a black cave, is named because the products are blackened from the process of baking by feeding smoke into the kiln.

In conclusion, it is inferred that the formation of today's Jeju style unique kilns, were not created solely from Jeju's native techniques. Rather, it was the transfer of techniques, especially the kiln building

skills that were transferred upon the arrival of technicians that made a great of contribution. It is assumed, that the initial style of Jeju's pottery kilns are the same or similar to ones found on the mainland of Korea. Therefore, it can be safely accepted that the current uniqueness of the Jeju style became indigenous to Jeju Island as a result of a long adaptation to Jeju's natural environment and through the consequential transformational process.

Key Words

pottery kilns, stone kiln, climbing kiln, Heobeok water carrying jar, Noranggul, Geomeungul, indigenous

교신 : 김정선 695-9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 제주돌문화공원
(E-mail : kiln119@hanmail.net 전화 : 016-532-3118)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7. 30.

게재확정일 2010. 08. 10.